

은혜에 접속하다

로마서 5:1-11

금년을 결산하면서 드릴 말씀은 은혜로서 이 말은 크리스천을 가장 특징적으로 구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은혜란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는 행위로 얻어낸 성취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닙니다. 너무 과분하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5:1)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5:2)을 얻게 되었습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접속, 입장, 접근을 말합니다. 충전기는 전기에 접속해야 하듯,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접속해야 합니다. 은혜에 접속할 때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인내하여 연단 받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강하고, 의인이고 친구가 될 때 사랑할 뿐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공로의 원리,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로 인간을 대하십니다. ▶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 삼부작이 나옵니다. 잃은 양 1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목동, 여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달리, 양(量)의 차이, 가치의 차이, 질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 모든 종교의 타락은 공덕주의입니다. 공덕주의란 인간이 종교적인 의무를 잘 이행하므로 구원과 축복을 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도 금식, 기도, 구제로 공덕을 쌓으려 했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닙니다(마 6장).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된 사람들입니다. 기생 라합, 모압에서 온 젊은 과부 룻, 시아버지인 유다의 쌍둥이 아들을 낳은 다말,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요 은혜의 기록입니다.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위대합니다. ▶ 예수님에 의한 영혼 구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죄보다 더 큼니다.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그것으로 죄를 대속하려 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켜 그분의 보혈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지은 나보다 더 귀한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과분합니다. 더구나 죄인을 위해서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는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에는 정신적, 물질적, 영적인 풍부가 있고, 이미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준비하고 그를 용서하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말처럼 그 은혜는 과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는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 은혜가 있어야 변화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간음하다 현자에서 잡힌 여인에게 율법과 정의는 죽이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살리십니다. 돌로 쳐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19년의 복역생활이 아닙니다. 신부가 보여준 은혜의 원리가 강박한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삶을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의 삶의 영적 대 수술은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 신앙생활도 은혜 생활이기 때문에 기쁨, 감사, 감동, 감격, 생명,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에 지난 시간을 맡기시고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